

PREVIEW

윤가림 Kalim Y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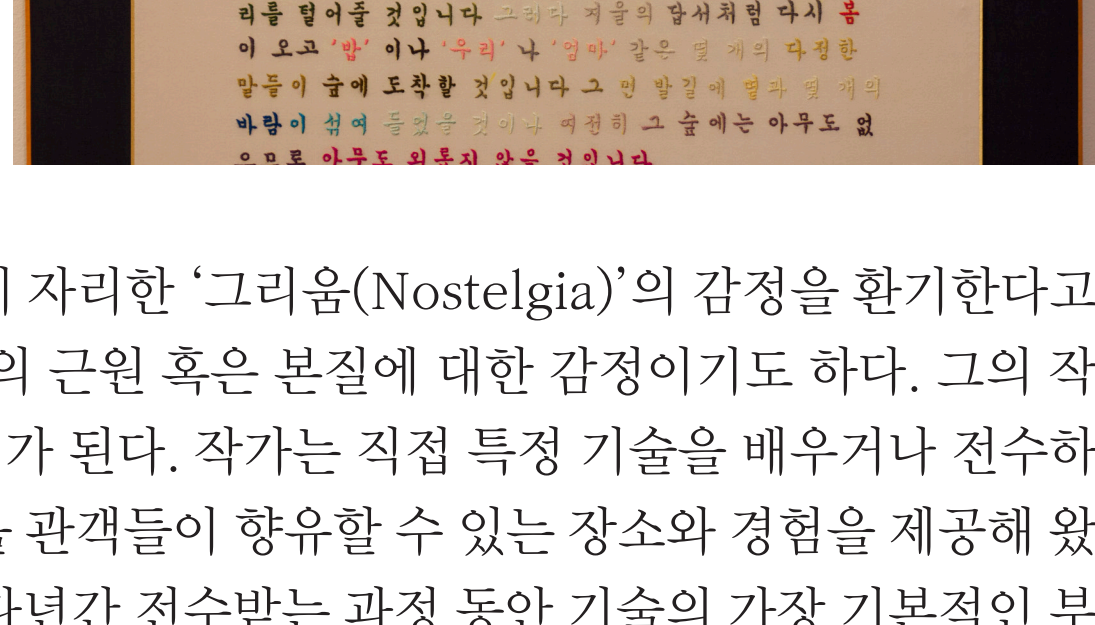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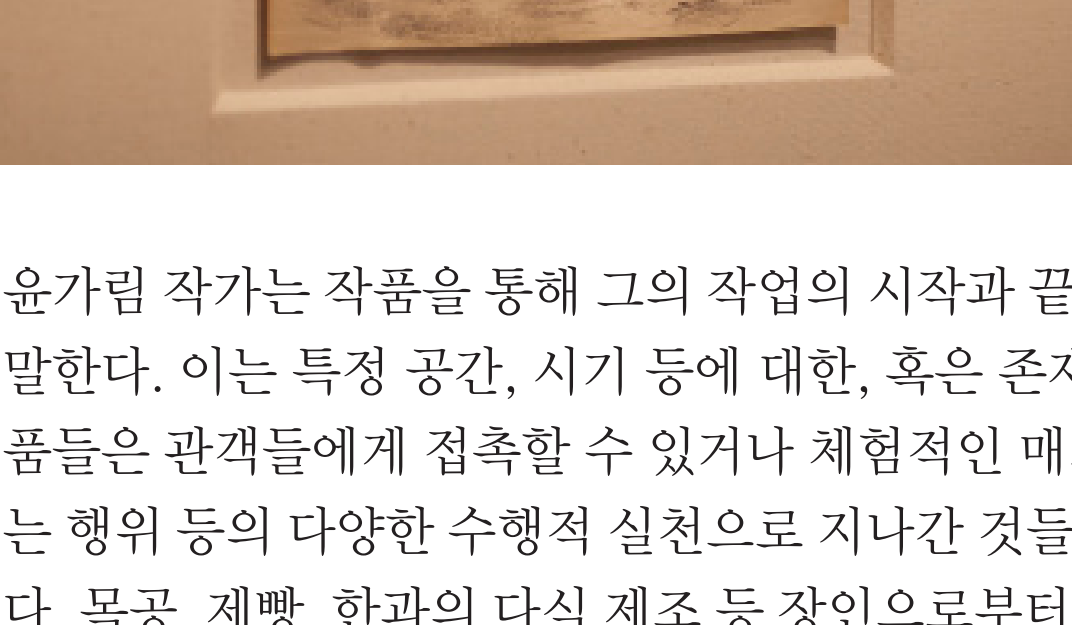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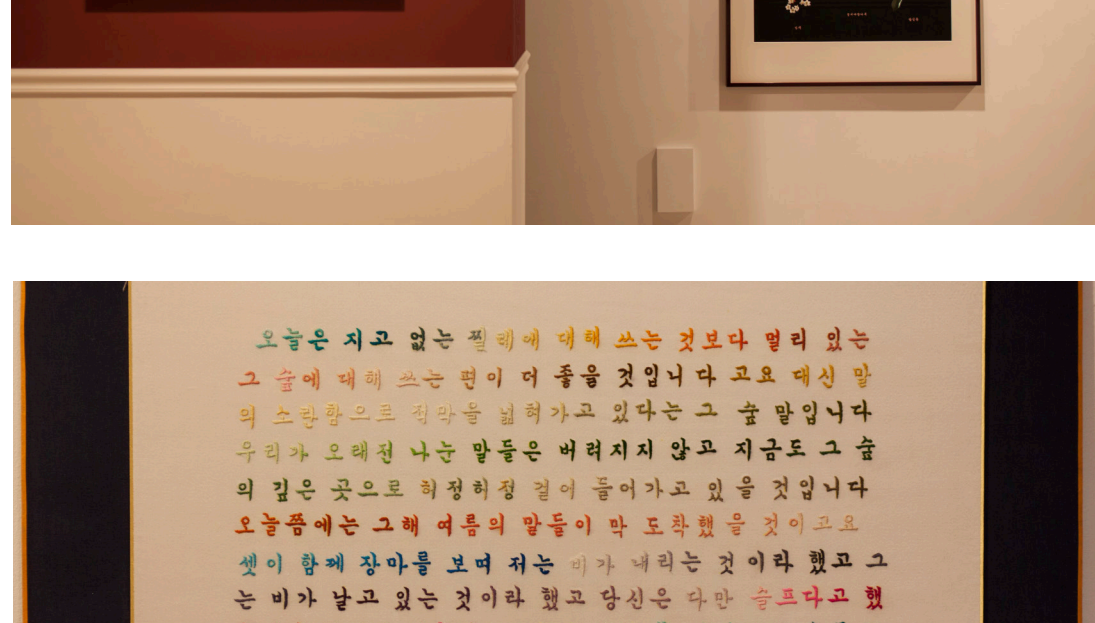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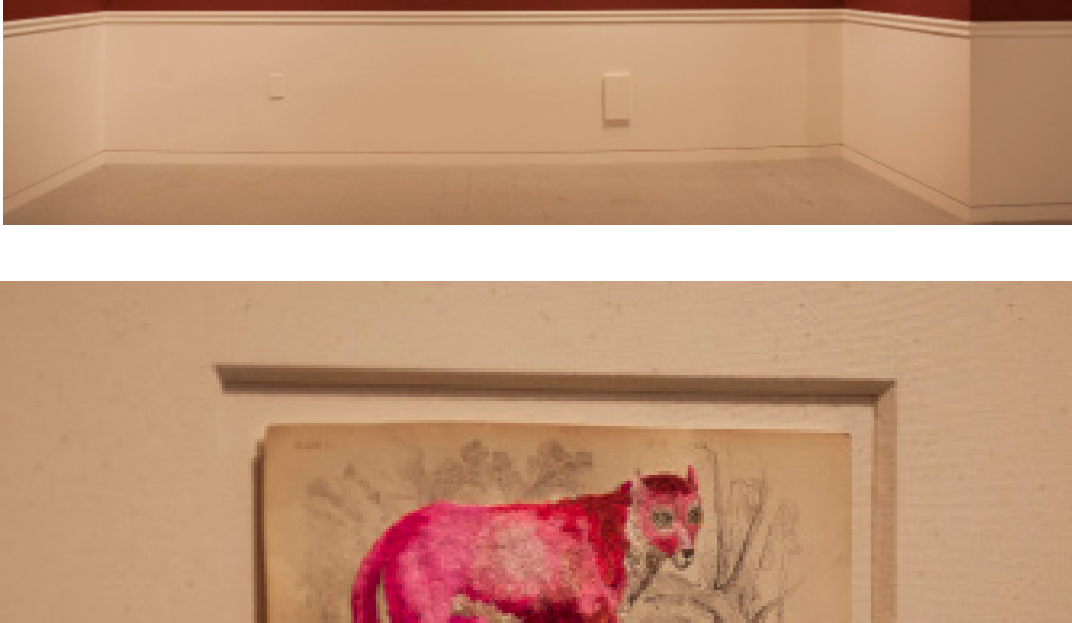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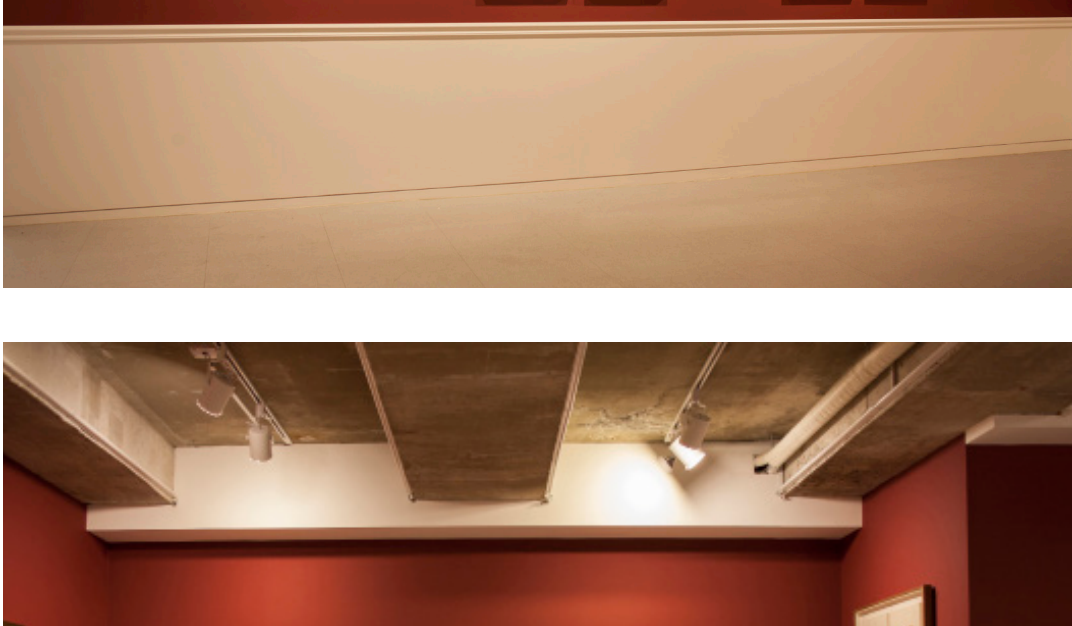
Tactile Hours

2021. 5. 20 목 - 2021. 6. 13 일

자수워크숍 : 5. 30 일 오후 3시~5시 (유료, 현장 및 ZOOM)

신청문의 willingndealing02@gmail.com

아티스트 토크 : 5. 23 일 오후 5시 30분~7시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윤가림 작가는 작품을 통해 그의 작업의 시작과 끝에 자리한 '그리움(Nostalgia)'의 감정을 환기한다고 말한다. 이는 특정 공간, 시기 등에 대한, 혹은 존재의 근원 혹은 본질에 대한 감정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접촉할 수 있거나 체험적인 매개가 된다. 작가는 직접 특정 기술을 배우거나 전수하는 행위 등의 다양한 수행적 실천으로 지나온 것들을 관객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장소와 경험을 제공해 왔다. 목공, 제빵, 관공의 다식 제조 등 장인으로부터 다년간 전수받은 과정 동안 기술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익히고 그의 프로젝트 속에서 활용하였다. 해당 기술을 자신만의 작업으로 재생산할 때는 온전히 윤가림의 예술 형식으로서의 변화와 응용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재구축된 결과물을 선보였다. 그리고 이 결과물은 관객들을 매개하며 특정 행동을 유발하였다.

2021년 5월에 진행하는 개인전 <Tactile Hours>에서는 꾸준히 익힌 전통 자수 기법을 통하여 만들어진 직업들을 선보인다. 더 이상 유행하지 않게 된 오래된 책의 일러스트 위에 자수를 놓는다면,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한 자수형식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는 2008년부터 진행해 온 방식으로서 중고 서점에서 찾아낸 책 속에 그려진 일러스트를 선별하여 여기에 작가의 자수 형식을 덧붙여서 새로운 이미지로 재구성되는 작업이다. 이전의 금실과 은실에 재료를 한정하고 이미지의 고층적 재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상상력을 보다 풍부하게 발휘하여 존재하지 않을 법한 화려한 색상을 대입하였다. 이는 사진기가 없던 시절에 특정 동물에 대한 묘사를 구적으로 전해주고 이를 기록했던 원본 제작자가 발휘했던 상상력에 더해진 윤가림 작가의 시공간을 뛰어넘은 일종의 협업적 태도라 해석할 수 있다.

INTERVIEW

Q. 2021년 전시를 위한 작품 중 오래된 서적의 일러스트 이미지 위로 바느질과 수놓기 행위는 몇 해 전부터 진행해 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갤러리 팩토리에서의 개인전 <Accumulated Traces>에서 보여주었던 시리즈와 변화된 지점이 있는지요?

A. 더이상 유행의 의미가 없어진 출판물의 이미지를 찾아서 변형시키는 작업은 2008년경부터 시작했습니다. 골동품이 활발하게 거래되며 현대의 삶 안에서 충분히 그것을 즐기는 영국 사람들의 모습에 감흥을 받았고 옥션하우스나 거버즈 세일 같은 곳에서 secondhand object를 발굴해내 나의 흔적을 더해 새로운 스토리를 부여하는 식의 작업을 활발히 하던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히스토리에서 나 자신을 읽어내려는 노력은 낮은 문화권에 있던 그때에만 유의미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예술도 낯설 수 있고, 모르거나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리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그때와 달라진 지점은 이 생각에 대한 깊은 탐색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작업을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전통자수나 손으로 전수되는 문화 같은 것들, 내용적으로는 자연세계가 묘사되는 동서양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좀 더 학습하게 되면서 작업에 적극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Q. 이전 작업 중에서 프레임에 제작하거나 가구 형식을 구현해 낼 때 상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완성도를 추구하고 있는데 디자인을 동시에 공부한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사용자에 의식하는 성향도 있는 듯 하고요. 이번 전시는 작가의 적극적인 행위만이 남고, 사용자라는 개념은 삭제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특히 이번 전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최근 몇 년간은 전시라는 테두리에서 관람자가 작업을 대하는 태도나 그것을 즐기는 과정 자체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스토리텔링 오브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의식해서 상황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향적인 시간을 겪으며 이번 전시 작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방망대해를 혼자 향유하는 기분이 줄곧 들었고, 그때마다 시간을 거슬러 가보기도 하고 자연속이나 시 안을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작업은 그런 시간 속을 오롯이 지낸 저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Q. 윤가림 작가의 작업에는 타 장르의 문화가 함께 적용되거나 반영되곤 합니다. 2015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개인전을 위해서는 제빵과 목공을 별도로 오랜 기간 배우셨습니다. 2019년 덴마크에서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국 전통 다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구요.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자수를 배우셨는데, 이 배움의 과정이 표면적으로 방법만을 익힌다고 보는데 내노라 하는 장인이나 문화재분들께 그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전수받고 즉 오랜 시간 배우고 난 후 자신의 작업으로 소화해 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전을 만드는 시기도 다른 작가보다 오래 걸리는 듯 하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이 시각예술로 스스로의 기술이나 방법론으로 전환될 때 어떤 철학이나 의도를 유지하시는지요?

A. 제가 벽에 부딪힌다고 생각할 때마다 틈을 만들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타 장르에 대한 꾸준한 호기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업을 시작할때부터 줄곧 작업의 시작은 순수한 창작의 즐거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술을 배웠던 장인들은 전문적인 기술적 완성도 안에서 자신의 예술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로 어떤 예술가 못지않은 순수한 창작의 즐거움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일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매료되었고 따라서 일 자체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 뒤에 따르는 저의 몫은 그것을 재해석해서 제것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그 방식을 뒤집기도하고 역설하기도 하면서 저만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의심과 반문을 하면서 계속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Q. 이번 전시에서 차용된 식구가 인상적입니다. 평소에도 시 읽기를 즐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특별히 이번 전시에 적용된 시의 특정 문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작가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를 십대시절부터 참 좋아했고, 국문학을 전공하신 어머니덕에 어머니께서 낭송해주시는 한국 현대시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문학 장르 중에서 시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시어 하나로 단번에 다른 시공간으로 저를 데려다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각예술이 현실세계와 이상세계 사이의 길을 열어준다면 시는 언어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만드는 시인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십년 전쯤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을 인용한 작업 이후 적극적인 시의 사용은 오랜만인데 앞으로 작업 안에서 더 확고하고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작업은 박준 시인의 '술'이라는 시 전문을 손자수로 놓은 것입니다. 저는 박준 시인의 다른 시나 에세이도 좋아하지만 이 시를 선택한 것은 이 시가 그림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 마치 기도문을 외우듯이 한 자 한 자 읊었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시문집 '불화하는 말들' 은 이번간 창작 강좌 수업 내용을 시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 중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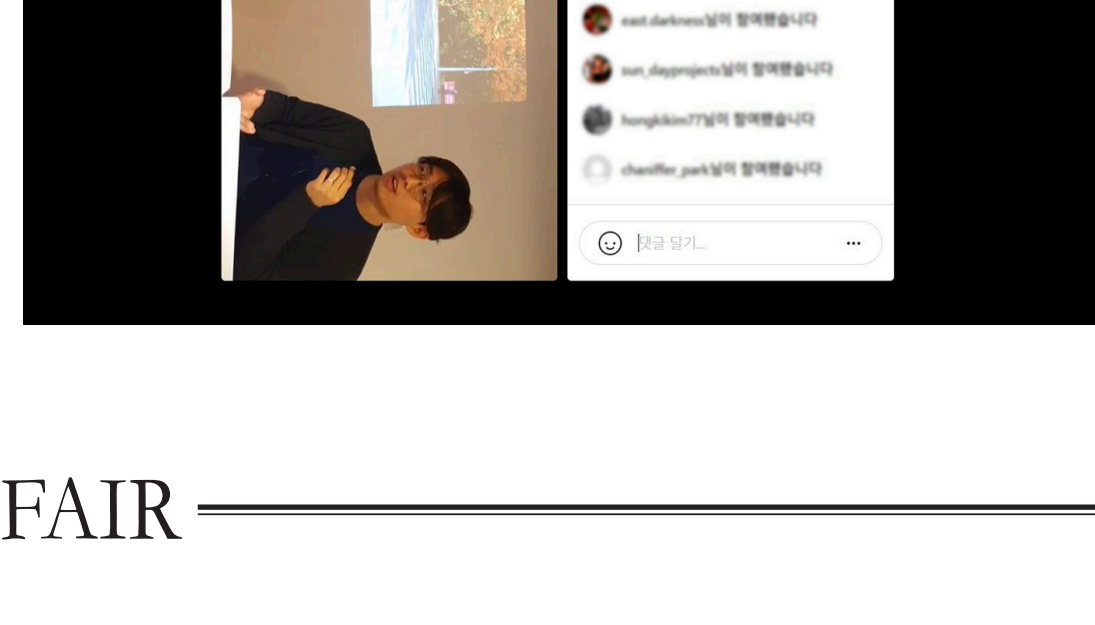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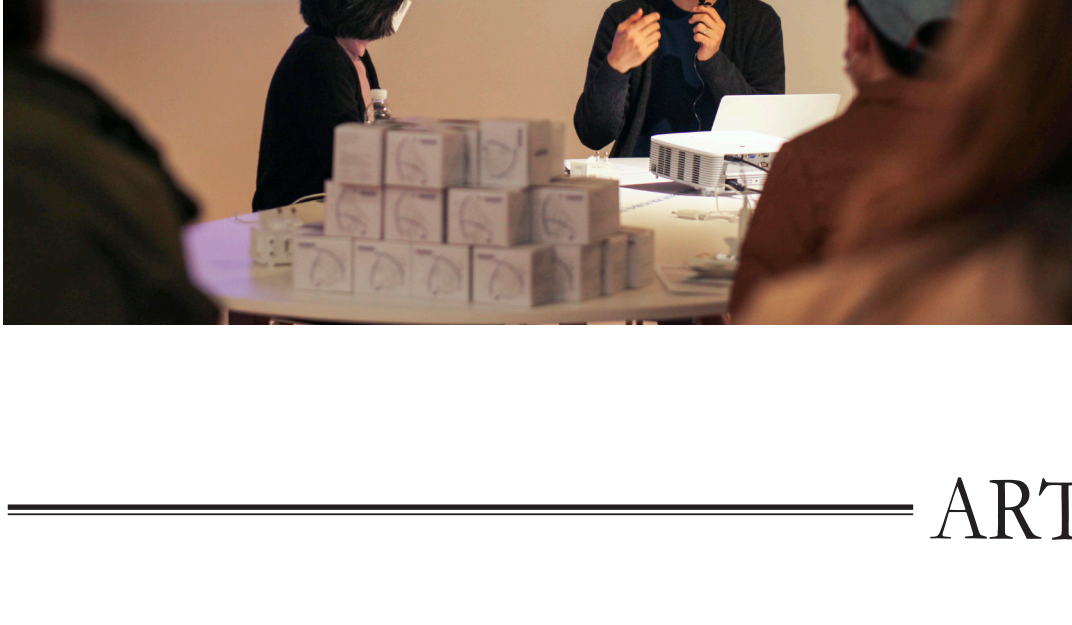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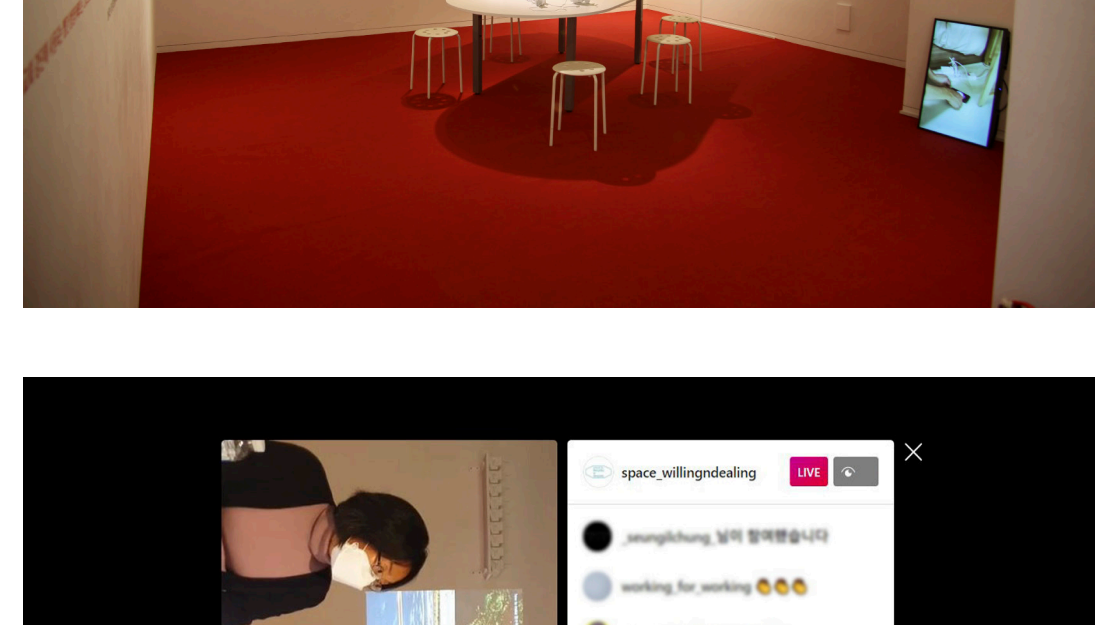
"... 우리가 할 일은 자기와 불화하고, 세상과 불화하고 오직 시하고만 화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험하게 하고 무시무시한 아름다움을 안겨다줄 거예요."

시의 사용을 허락해주신 박준 시인에게 감사드리고, 막막함에 눈뜨게 해주신 이성복 선생님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REVIEW with PHOTOS

맹성규 Seonggyu Maeng SUNDAY ELE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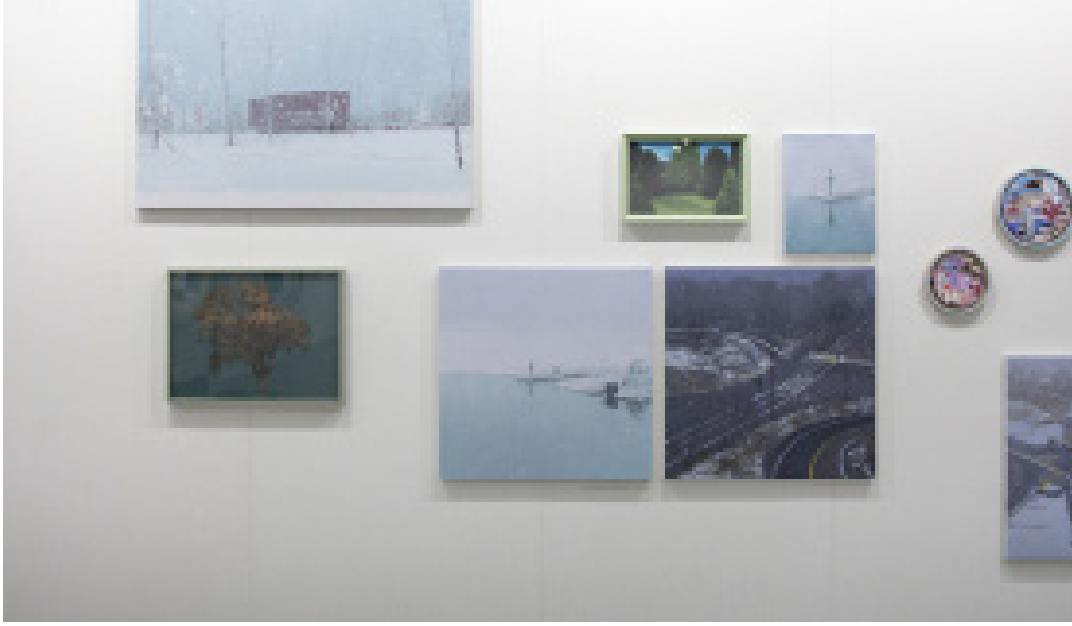
2021. 4. 7 수 - 2021. 4. 30 금



ART FAIR

ART BUSAN BEXCO Busan Korea May 14-16, 2021 VIP Preview May 13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부산 (BEXCO) 제1전시장(Exhibition Center 1)에서 열린 본 행사의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부스에는 노충현, 장정은, 이세준, 백경호 작가의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EDUCATION

윌링앤딜링 현대미술강연시리즈

윌링앤딜링 현대미술 강연 시리즈 9 (인티투 프로젝트 : 우리시대의 예술가)는 안소연 비평자 기획으로 구성하는 현 한국 미술의 조각 장르에 대한 강연이다. 한국 현대미술 씬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권오상, 최고은, 최하늘, 김인배, 윤지영 작가와 함께 대화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연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각 작가별 강연 등록도 신청가능합니다. willingndealing02@gmail.com으로 문의 주세요.

▶ 기획자

안소연은 미술비평가로 활동하면서 미술의 현장에서 언어를 통한 이미지 사유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해왔으며, 최근에는 비평적 글쓰기와 말하기의 행위를 통해 예술적 삶의 가치와 실천의 방법을 찾고 있다.

▶ 프로그램 내용

- 1. 권오상x안소연 5.26 사물과 사물의 이미지를 이용해 그것이 조각적 경험과 결합하여 조각의 새로운 다뤄지게 된 조건 형성의 과정을 묻고 이야기 해 본다.
2. 최고은x안소연 6.2 사물과 조각 사이의 간극에서 '오브제' 개념을 확장시켜 조각적 수행의 조건을 재인식한 최근 작업까지의 흐름을 차근차근 대화하며 되짚어 본다.
3. 최하늘x안소연 6.9 새로운 조각의 실존적 정체성에 관해 묻고 답하면서 동시대 조각의 새로운 출현에 대해 함께 살펴본다.
4. 김인배x안소연 6.16 조각적 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 사유에 대한 현상적 경험을 대화로 공유해 본다.
5. 윤지영x안소연 6.23 신체의 움직임이나 퍼포먼스적 수행을 조각적 구조 안에서 새롭게 이야기 해 본다.

SHORT-CUT NEWS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심야민 작가는 비트리 갤러리에서 열린 그룹전 <Balanced Vol.3>에 참여했습니다. 2021. 2. 2 - 2021. 3. 7

권혁, 정용국 작가는 공-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4길 9-3, 충정로역 9번 출구)에서 2인전 <바다 보다 그렇다 SEA SEE SI>를 가졌습니다. 2021. 4. 27 - 2021. 5. 29

노은주 작가는 아트선재에서 열린 그룹전 <작아져서 점이 되었다 사라지는>에 참여했습니다. 2021. 5. 20 - 2021. 7. 11

홍승혜 작가는 Sasa[44]와 시청각 랩에서 2인전 <교차확인 Cross Check>을 가졌습니다. 2021. 5. 13 - 2021. 6. 30

박선민 작가는 이의록 작가와 원앤케이 갤러리에서 2인전 <평행///연결>을 가졌습니다. 2021. 4. 22 - 2021. 5. 23

